

반도체

비중확대 (유지)

이 승 우

02 6915 5771
swleesw@ibks.com

R.A 이 양 중

02 6915 5666
yj.lee@ibks.com

DRAM은 폭풍전야(暴風前夜)

- 5월 상반월 DRAM 고정거래가격 DDR3 2Gb 1.53달러, 4Gb 3.06달러로 2% 상승
-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가격 흐름 지속
- 성수기인 하반기 진입하면서, 채널재고가 소진될 경우 DRAM 공급부족 심화될 전망
- 연말 출시되는 게임콘솔기기 DRAM 탑재용량 증가(8GB)도 긍정적 캐털리스트

5월 상반월 고정가 발표 - 비수기 임에도 양호한 흐름 지속

지난 주 반도체 현물 시장은 DDR3 4Gb 3.17달러, 2Gb 1.65달러, MLC 64Gb 6.10달러, 32Gb 3.92달러로 전주대비 각각 0%, 2.4%, 1.3%, 0.8% 소폭 하락하며 마감되었다. 한편, 5월 상반월 고정거래가격은 DDR3 4Gb와 2Gb칩이 각각 3.06달러, 1.53달러를 기록해 전기대비 +2% 상승하며 강세 기조를 이어갔다. NAND 고정가는 MLC 64Gb 5.26달러(-1.5%), 32Gb는 3.36달러(+1.2%)를 기록했다.

표 1. 반도체 현물가격 및 고정거래가격

(US\$)	DRAM				NAND			
	DDR3 2Gb		DDR3 4Gb		MLC 32Gb		MLC 64Gb	
	Price	Chg.	Price	Chg.	Price	Chg.	Price	Chg.
현물가격								
5/10	1.69	-0.6%	3.17	0.0%	3.95	-0.3%	6.18	-0.2%
5/13	1.69	0.0%	3.17	0.0%	3.94	-0.3%	6.17	-0.2%
5/14	1.67	-1.2%	3.17	0.0%	3.93	-0.3%	6.15	-0.3%
5/15	1.66	-0.6%	3.17	0.0%	3.92	-0.3%	6.12	-0.5%
5/16	1.66	0.0%	3.17	0.0%	3.91	-0.3%	6.09	-0.5%
5/17	1.65	-0.6%	3.17	0.0%	3.92	0.3%	6.10	0.2%
W/W	-2.4%		0.0%		-0.8%		-1.3%	
YTD	54.2%		39.6%		36.1%		5.0%	
고정거래가격								
'13.1	0.92	10.8%	1.84	10.8%	2.51	1.6%	5.00	0.4%
	0.95	3.3%	1.91	3.8%	2.57	2.4%	5.00	0.0%
'13.2	1.08	13.7%	2.16	13.1%	2.63	2.3%	5.00	0.0%
	1.08	0.0%	2.16	0.0%	2.63	0.0%	5.00	0.0%
'13.3	1.28	18.5%	2.56	18.5%	2.88	9.5%	5.34	6.8%
	1.31	2.3%	2.63	2.7%	2.96	2.8%	5.34	0.0%
'13.4	1.44	9.9%	2.88	9.5%	3.14	6.1%	5.34	0.0%
	1.50	4.2%	3.00	4.2%	3.32	5.7%	5.34	0.0%
'13.5	1.53	2.0%	3.06	2.0%	3.36	1.2%	5.26	-1.5%
YTD	84.3%		84.3%		36.0%		5.6%	
현물가 프리미엄	7.8%		3.6%		16.7%		16.0%	

자료: DRAM Exchange, IBK투자증권

DRAM 시장은 현재 폭풍전야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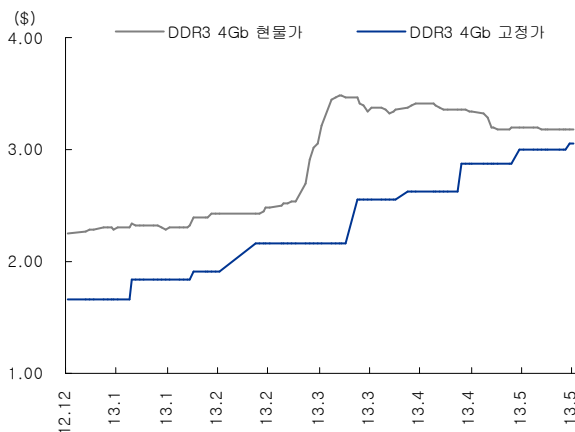
DRAM 시장,
하반기에 진정한 공급부족
발생 가능성 높아...

PC DRAM 가격이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PC OEM 및 일부 모듈업체들이 향후 DRAM 수급에 대하여 불안을 느끼고, 재고를 지속적으로 축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DRAM 업체들은 여전히 프리미엄이 높은 스페셜티 DRAM(모바일, 서버 등)의 생산 비중을 늘리고 PC DRAM 생산 비중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타이트한 PC DRAM의 수급이 쉽게 해소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유통채널의 재고가 다 소진되고, 성수기인 하반기에 진입하면 DRAM의 공급부족은 정말로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DRAM 시장은 한마디로 현재 폭풍전야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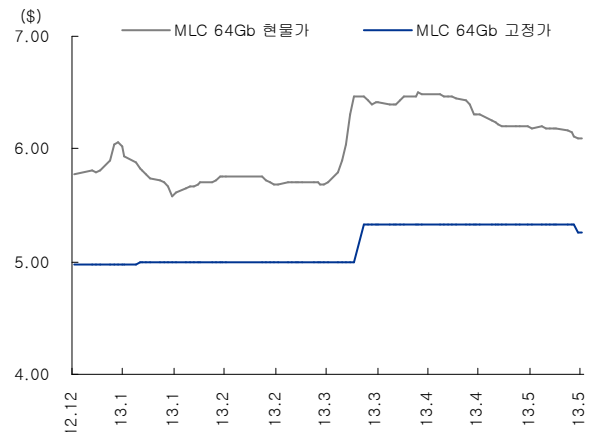
NAND는 특별한 이슈가 없는 가운데, 계절적 비수기 및 이로 인한 메모리 카드와 USB 드라이브 가격 하락이 고정거래가격 하락(MLC 64Gb -1.5%)으로 이어졌다. 5월 하반기에도 분기말 효과 지속 및 OEM과 채널에서의 수요감소로 인해 고정거래가격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DDR3 4Gb 현물가 vs. 고정가



자료: DRAM Exchange, IBK투자증권

그림 2. MLC 64Gb 현물가 vs. 고정가



자료: DRAM Exchange, IBK투자증권

차세대 콘솔 게임기 영향 점검

소니 7년 만에 PS4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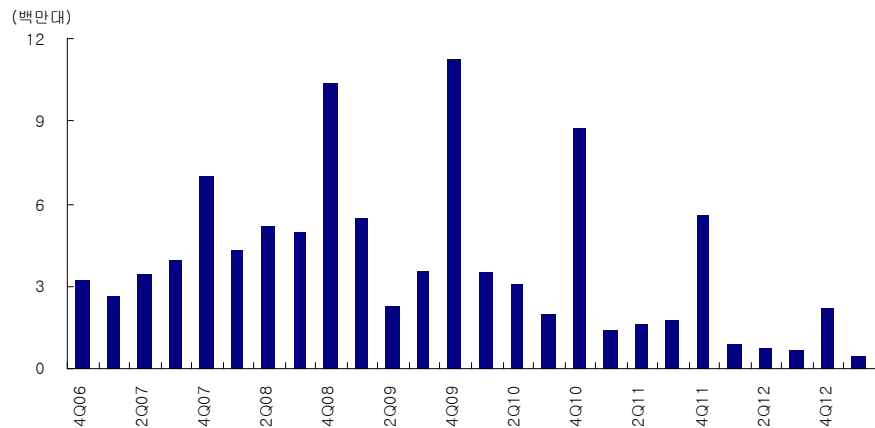
지난 2월 20일 소니는 무려 7년 만에 PS3의 후속작인 PS4를 공개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DRAM 탑재 용량이 8GB로 전작 PS3(256MB) 대비 32배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또한, 5월 21일 공개 예정인 XBox720도 8GB DRAM을 탑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역시 전작 XBox360(512MB) 대비 DRAM 용량이 16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PS3는 2006년 11월 출시 이후 2012년 9월까지 약 6년간 7,020만대의 판매를 기록했으며, Xbox360도 2005년 11월 출시 이후 2013년 2월까지 약 7년여 간 누적 7,600만대가 판매되었다. 또한, 콘솔 게임기 최고 히트작인 닌텐도 Wii도 출시 이후 6년간 누적 1억대가 판매되었다. 즉, 콘솔 게임기 빅3는 일부 6~7년간 합계 총 2.4~2.5억대 가량 판매된 셈이다. 콘솔형 게임기의 연간 판매량은 약 4,000만대에 달했던 것이다.

신작 콘솔 게임기는 적어도 2~4%의 추가적인 DRAM 수요를 만들어낼 것으로 추정

그러나, 스마트폰의 보급과 모바일 게임의 확대 등으로 인해 콘솔 게임기의 과거 판매량이 유지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6~7년 만에 대대적인 업그레이드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적어도 과거 평균의 1/4~1/2 정도인 연간 1,000~2,000만대의 수요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내년 이후 연간 약 0.8~1.6억GB(2013년 전체 DRAM 수요의 약 2~4%)의 새로운 DRAM 생겨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올해 연말 이후 PS4 및 Xbox720 등 게임기 신제품은 DRAM 수요에 새로운 캐털리스트가 될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그림 2. 닌텐도 Wii 분기별 출하량



자료: 위키피디아, IBK투자증권

반도체 섹터에 대해 긍정적 의견 유지

메모리를 중심으로 한 한국 반도체 섹터에 대해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하고, 한국의 대표 반도체 업체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PC 판매 부진에도 불구하고, 중국 로컬 화이트박스 태블릿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커머리티용 DRAM 수급이 계속 타이트할 것으로 예상되고,
둘째,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스페셜티 수급도 점점 타이트해지고 있으며,
셋째, 올해 연말 이후 게임기용 DRAM 수요가 추가적인 업사이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